

“암행어사 출두요”...순천시, 청림도시 건설 앞장

교육·건설 등 각계 대표 시민 암행어사 8명 위촉 2년간 활동 공직자 금품 수수·인허가 과정 부당 처리 등 각종 비위 제보

순천시가 시민 암행어사 8명을 위촉하는 등 청렴한 도시 건설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달 시민 암행어사 공개모집에 나섰으며 66명이 응모했다. 순천시는 지역 행정과 실정에 밝고, 성, 지역, 분야별 대표성과 주요 경력 등을 고

려해 시민 암행어사 8명을 선정했다. 위촉된 시민은 건설업이나, 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민 암행어사증과 어사패를 받았으며 별도의 활동비 없이 2년간 활동한다.

비공개로 활동하며 공직자의 금품, 향음 수수나 인허가 과정의 부당 처리, 공사현장 부실관리 등 각종 비위를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순천시는 이들이 공직자에게 감찰을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활동 기준을 마련해 동의서를 받았으며, 이들이 비위를 저지르면 곧바로 해촉하기로 했다. 공사 현장의 비리, 각종 공직감찰 등에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투입돼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는 의문이다.

또 각종 현장에서 불필요한 민원과 감찰 논란만을 야기할 우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공직 감찰 기능이 있지만, 적발하기 쉽지 않아 민간 참여를 확대해 비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암행어사를 도입했다”며 “암행어사들이 감투를 쓴 것처럼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동기준을 제시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바지락 전국 최대 산지 고창군, ‘바지락 라면’ 판매

고창군이 전국 최대 바지락 산지의 명성에 걸맞게 먹거리 개발을 통해 ‘바지락 라면’을 선보였다. (사진) 고창군은 전통시장 특화 먹거리로 ‘바지락 라면’을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다. 군은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고창군 전통시장에서 파는 ‘바지락 라면’은 싱싱한 바지락을 듬뿍 넣어 깊은 맛을 낸다. 또 해풍을 맞은 청양고추를 썰어 넣



어 기분 좋은 듯한 매운맛도 있다. 앞서 고창군은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창 전통시장의 슬로건을 ‘건강한 먹거리를 자랑하는 무병장수 전통시장’으로 삼고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펼치고 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최근 군산대 산학협력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실무협의회를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군산시 제공)

“목포시 종합경기장 ‘턴키방식’ 발주 철회를” 전문건설업체 회원 500여명 내달 7일 집회

목포시의 종합경기장 신축을 위한 ‘턴키방식 발주’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건설업체가 발주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목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목포시의 종합경기장 신축 턴키 발주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집회에는 협회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오는 2022년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목포시는 대양동 일원에 공인 1층 종합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와 전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입찰제안서를 만들고 있으며, 다음 달 중에 턴키방식으로 조달청 의뢰나 직접 발주할 예정이다.

턴키방식은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에 일괄 참여하는 것으로 전기나 통신, 소방 등의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목포시는 “종합경기장 신축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일정 지연 등을 고려할 때 턴키 발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위법한 통합발주 방식의 합리화를 위한 공색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목포시의 ‘분리발주 시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된다’는 입장에 대해 협회는 “주 공정한 건축공정은 턴키방식으로 집행하면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의 설계·시공 부분을 분리하면 사업추진일정 지연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군산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 나선다 전담부서 신설 군산대와 함께 에너지·자동차산업분야 육성

군산시가 군산대와 함께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를 나선다. 군산시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4월까지 강소연구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시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특구 지정 요청서를 상반기 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특구에 새만금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를 조성하고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산업 분야를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새만금산업단지에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해상풍력 전문센터, 상용차 기술 프라자 등이 들어서는 데다 플라즈마 기술

연구센터, 자동차융합기술원, 과학기술 연구기관 등이 있어 특구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강소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세금 면제, 개발부담금 감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사업화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강소특구를 유지하면 많은 유망기업 유치와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지원 등으로 군산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전남 8가구 중 1가구 1억 이상 소득 지난해 2413어가로 전년보다 2.8% 늘어

지난해 전남지역 어가 8가구 중 1가구 이상이 1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군과 함께 지난해 고소득 어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1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전남지역 어가는 2413어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1만 8871어가의 12.8%로, 어가 8가구 중 1가구 꼴이다. 수산물 생산량 증가와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도 2348어가보다 65어가(2.8%)가 늘었다. 전남지역 1억 원 이상 고소득 어가는 2013년 2234어가에 달했으나, 2014년 2073어가, 2015년 1949어가로 줄었다가 2016년 2130어가, 2017년 2348어가로 다시 증가 추세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1318어가로 고소득 어가의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857어가로 36%, 5억 원 이상도 238어가로 전체 10%를 차지했다. 이 중 45어가(가공유통 58%·어선어업 24%·양식 18%)는 1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북·교·교막 등 패류 양식이 730어가(30%)였으며,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이 592어가(25%), 어선어업 420어가(17%), 가공 유통 분야 304어가(13%), 어류양식 210어가(9%) 순이다. 지역별로는 완도가 581어가(24%), 진도 426어가(18%), 고흥 310어가(13%), 여수 282어가(12%), 해남 278어가(12%) 순이다. 완도·진도·고흥이 전체 고소득 어가의 절반을 차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맘껏 드세요”

내달 2일부터 약수축제...길놀이 행사·농악단 판굿 등 다채

지리산 뱀사골에서 채취된 고로쇠를 전국에 알리는 고로쇠 약수축제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남원시에 따르면 '제3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가 2일부터 산내면 뱀사골 반선주차장에서 펼쳐진다. 축제는 산내면 발전협의회와 지리산남원 뱀사골 고로쇠영농조합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축제는 산내면 농악단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약수제 길놀이 행사와 약수제, 농악단 판굿, 기념식 등으로 시작된다. 고로쇠 약수 힐링 걷기와 즉석참여 노래부르기, 초청 가수공연, 고로쇠를 활용

한 이벤트 및 체험,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이어진다. 특히 축제장에서는 무제한으로 고로쇠를 제공하는 음수대가 설치된다. 개인 컵을 가진 방문객들은 음수대를 통해 지리산 고로쇠를 맘껏 마실 수 있다. 차산진 산내면 발전협의회 회장은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는 일교차가 큰 해발 6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생산돼 맛이 좋고 영양분이 풍부하다”면서 “고로쇠의 깊은 맛과 지리산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새봄 나눔이로 더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여수에서 최고 요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20억5천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3627-8282

